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롬3:24)”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에 힘을 얻으며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또 한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며, 온통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땅과 그 땅을 구원할 길임을 기도합니다.

2016년을 시작하며 마음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 작은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을 나눕니다. 9월의 지방 행사를 통해 영혼을 연결시켜주시고, 내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땅 끝에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E 시에 사는 S는 요리사로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마흔여덟의 미혼 여성이며, 2012년에 한국에 여행을 다녀온 한류 팬이며, 행사 이후에 10월과 11월에 한 차례씩 수도를 방문했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마흔 살 미혼인 유치원 교사인 여동생 M도 만나며 교제했는데, 사라, 마리아, 이들의 이름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4명의 N 소식은 수도에 있는 N(니할) 언니의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청년과 약혼 얘기가 오가고 지난여름 영국 여행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내년의 임용고시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올해 3명이 교사가 되어 지방에 있고 결혼한 2명은 임신 소식이 있는데 만나서 교제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H 부인은 막내딸의 대학생활과 수영 훈련 뒷바라지와 1월에 큰 딸의 출산을 앞두고 있고, 둘째의 치과 병원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막내딸의 수영 훈련이 주일에도 있어서 주일 만남이 어려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복음으로의 교제를 위해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10월에 전통 한복 강좌를 수강하며 같이 공부한 9명의 학생들과 단체 카카오 톡을 통해 소식을 나누고 한복과 관련된 새로운 만남에 기대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6개월 동안 집을 함께 쓸 공무원인 기혼자매가 혼자 언어공부를 위해서 왔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는 여학생 한 명은 한국어를 공부한 적도 있어 주일마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언어 공부를 위한 목적이지만 성령께서 A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식 조리실은 11월 18일 문을 열었고, 4주간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말에는 한인회 주최의 김치축제가 있어 한식반 학생들과 함께 차와 과자로 참여하고, 셋째 주말에는 문화원 축제에 한식반 학생들이 차와 음식을 담당할 계획으로 준비하는데 좋은 마무리를 위한 기도와 저는 약3개월 일정으로 어머니를 모시려 12월 18일 입국 예정인데, 가족들 간에 불편한 마음들이 풀리는 계기와 넷째와 막내 가정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오래 기도하며 후원하신 동역자님들의 헌신에 감사한데 파송교회가 20년 이상 된 사역자들의 편지를 책으로 엮었기에 재정목록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2016년 11월 29일 김에스더 드림